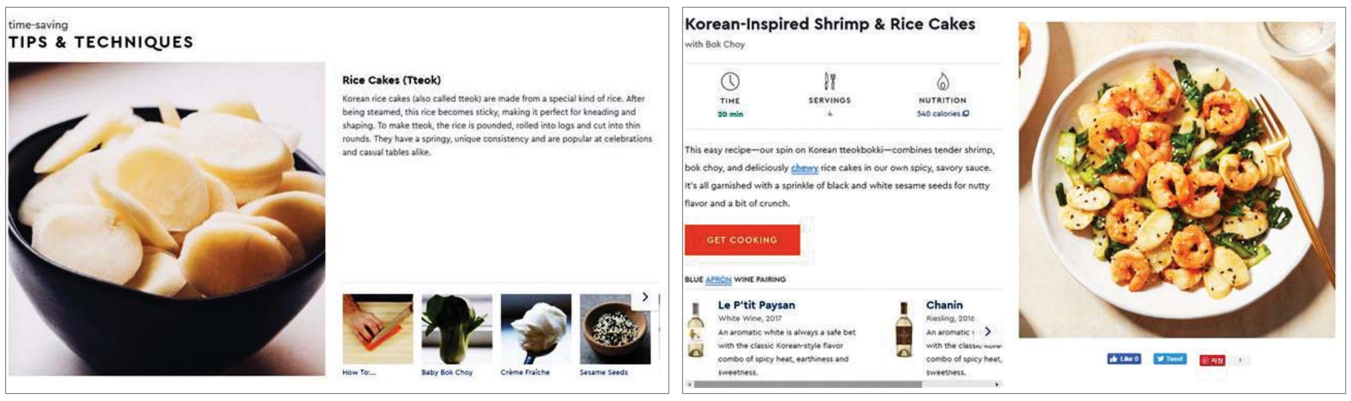
美 밀키트 시장 사로잡은 '매운맛'… aT, 한식 정조준

〈식사(Meal) +세트(Kit)〉

aT 美 블루에이프런과 연계
고추장·쌀떡 등 퓨전메뉴로
한국식 재료 소비 확산 나서
"간단 조리… 소비 확대될 것"



aT가 밀키트 서비스 대표업체인 블루에이프런(Blue Apron)에 공개한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모습. /aT

최근 미국에서 밀키트(meal ki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 밀키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제품 출시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밀키트는 식사(Meal) +세트(Kit)의 합성어로 쿠킹박스, 레시피 박스라고도 불리며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과 조금 다른 개념이다. 밀키트란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키트이며, 최근 유명 쉐프들의 레시피로 제공되는 Meal-Kit도 출시되고 있다.

특히, 원하는 식단 및 재료분량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식품·요식업계 DIY형태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12일 aT에 따르면 밀키트 서비스 대표업체인 블루에이프런(Blue Apron)과 연계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메뉴 론칭을 추진한다.

블루에이프런은 2012년에 창립돼 밀키트 서비스를 개척한 스타트업 업체이자,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며 매달 200만 이상 가구에 식재료를 배달하는 업체다.

이번 한국메뉴 론칭에서는 고추장, 쌀떡을 이용한 퓨전 메뉴를 선보이며 한국식 재료 소비확산에 나선다.

메뉴로는 쌀떡을 이용한 Korean-inspired Shrimp & Rice cakes과 제육볶음 같은 Korean Pork & Rice cakes, 고추장을 이용해 불고기 맛이 나는 Korean Style Beef Bowls와 닭강정을 따라한 Korean Popcorn chicken을 선보이며, 한끼 4인 기준으로 약 36달러에 판매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국식재료의 고유명사화를 통해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Red pepper paste 대신 'Gochujang'으로 표기하고, Rice cake은 'Tteok'과 함께 표기해 한국산 재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할 예정이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블루에이프런과 연계한 한국식재료 수출확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론칭 당시 고추장, 쌀떡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다. 2017년 고추장은 약 100만 가정에 배달돼 30톤이 소비됐으며 쌀떡은 약 20만 가정에 배달돼 11톤이 소비된 바 있다.

미국 최대의 밀키트 서비스 업체에서 미국 일반 가정에 한국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본 사업은 한국 식재료의 대미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현지 소비저변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에서 고추장은 새로운 핫소스로 부상하고 있어 대미수출도 지속 증가세에 있다"며 "쉽고 간단한 조리방법을 선호하는 미국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한 이번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장과 더불어 미국주류시장에서의 고추장 소비가 확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亞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제주로 모인다

산업인력공단-세계은행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2018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이달 13일과 14일, 양일간 제주 해비치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경제와 공동의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혁신,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를 주제로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까지 국내외 직업능력개발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종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디지털 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HRD 정책 및 협치 혁신 ▲직업능력개발의 혁신 ▲ASEAN+3 공동의 미래 구축 등 3개의 소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 박 교수는 한국의 직업훈련 사례를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평생학습 ▲신기술 학습 강화 ▲중소기업 훈련 지원 ▲교사와 시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인 'HRD 정책 및 협치 혁신'에서는 '정책'과 '거버넌스'를 키워드로 주제발표와 함께 '신(新)성장 모델을 위한 직업능력 정책', '정책적 조화와 촉진을 위한 통합적 기획'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에는 토비 린든(Toby Linden) 월드뱅크(WB : World bank) 국장, 레이 소픽(Rey Sopheak) 캄보디아 교육부 국장, 피싯 랑사리우티쿨(Pisit Rangsariwutikul) 태국 전문자격기구(TPQI : Thail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Institute)이사장, 필 램버트(Phil Lambert) 시드니대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신성장 모델을 위한 기술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세션인 '직업능력개발의 혁신'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키워드로 주제발표를, '기술과 인적자원의 창의성 강화'와 '일의 변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루디 살라우딘(Rudy Salahuddin) 인도네시아 경제부 차관은 '미래 직업능력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기술변화가 국가 내 인력개발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ASEAN+3의 신성장 동력을 '인적자원개발'에서 찾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적자원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최신웅 기자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저감' 도시 캠페인

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도심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은 '내가 만드는 깨끗한 바다'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쓰레기로 액세사리를 만드는 업싸이클링 부스 체험, 해양쓰레기 OX 퀴즈, 플로깅 참여 SNS 인증 이벤트, 플래쉬몹 단체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해안가 및 해변 방문 시 발생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등 생활 속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도심 캠페인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K-뷰티·웰니스에 빠진 캐나다 여심

〈女心〉

관광공사 '케이뷰티 인 캐나다'
20~30대 현지인 1500여 명 참석
미샤·어퓨 등 30개사 판촉행사도

한국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는 캐나다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KOTRA,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과 함께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최대 도시인 몬트리올의 하얏트 호텔에서 '케이뷰티 인 캐나다(K-Beauty in Canada)'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캐나다 20~30대 여성층 대상 한국의 뷰티·웰니스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지인 약 15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미에서 활동 중인 유명 K-뷰티 블로거 모건 스튜워트(Morgan Stewart)가 한국산 화장품을 활용한 자신만의 한류 스타일 메이크업 노하우를 공개했다.

또한 한국의 힐링과 명상, 뷰티와 스파 등을 주제로 한 대표적 뷰티·웰니스 관광지들이 소개됐다. 한국산 화장품 쇼케이스, 뷰티웰니스 관광콘텐츠 SNS 공유 이벤트, Live DJ Show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미샤, 어퓨, 동인비 등 국내 화장품 업계 30개사가 참가한 특별 판촉행사도 열렸다.

박형관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장은 "한국 뷰티 마니아층의 방한 확대를 위해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동탄2신도시 '주거 단독주택용지' 첫 공급

LH D22·23블록에 총 78필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동탄2신도시 내 첫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22, 23블록 총 78필지를 공급한다.

12일 LH에 따르면 D22, 23블록은 일반 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로, 파아파트 위주의 획일화된 주거형태에서 벗어난 고급 단독주택지역으로 계획됐다.

이 곳은 동탄 순환대로가 인접하고 근린상가, 왕배초등학교, 청림중학교, 청림초등학교(예정), 정현고등학교(예정), 동탄7동 도서관(가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100m 반경에 위치한다. 또 블록 전체가 왕배산과 녹지에 둘러싸여 있다.

공급금액은 D22블록은 4억7150만~5억4027만원, D23블록은 4억6081만~8억3433만원으로 3.3㎡당 평균 670만원 수준으로 2층 2가구 이하로 건축 가능하다. 다만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 용적률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급일정은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1순위 12월 3일, 2순위 12월 4일 신청접수, 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계약체결 예정이다.

순위별 신청자격은 1순위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법인신청 불가)이며,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법인신청 가능)다. 1인(법인)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 조건이다.

동탄2신도시는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된 동탄1신도시, 동탄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면적 35㎢, 주택 15만호, 인구 41만명에 달한다. 수도권고속철도(SRT)를 이용하면 수서 15분 이내, 세종시 및 전국 혁신도시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하다.

/채신화 기자 csh9101@

HUG

한부모가정·독거노인 보증료 할인률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2일부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한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이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였다. 또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가령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연간 보증료(약 26만원) 대비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채신화 기자